

"日, 주변국 상처 아물 때까지 계속 사죄·반성해야"

기사입력 2016/08/15 17:26 송고

오구라 기조 교수 "한국의 지나친 민족주의도 비판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일본인은 한국인과 중국인, 그 외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죄가 부족하다,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해도 그저 말없이 마음속에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구라 기조(小倉紀藏) 일본 교토(京都)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15일 공개한 '일본인은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은 주변국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계속, 조용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철학자인 오구라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았고 NHK 방송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등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지식인으로 꼽힌다. 그는 20일 '조일수교 140년, 만남과 현재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이 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구라 교수는 전후 71년 동안 일본이 '상복을 입은 채' 생활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일본인이 마음 속으로 조용히 '죄송스럽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일본인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만큼 오만하지 않다"고도 썼다.

그는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전후 상당히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누구로부터든 진정한 비판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악행을 한 일본만 비판받고 따라서 반성과 성장을 하는데 반해,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한국은 진지하게 비판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사태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은 민족주의 성향에도 쓴소리를 했다. 오구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아마 그 강렬한 민족주의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인의 삶을 괴롭게 하는 상당 부분은 지나치게 강한 민족주의에 기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민족주의를 진지하게 비판해주는 상대야말로 가장 대등하고 진지하게 한국과 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며 한국을 비판해줄 '친구'는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을 여는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고발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발족한 모임이다. 민족·이념 대립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모색한다는 게 모임의 취지다.

심포지엄에서는 또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전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최근 일본 사회의 변화와 동요가 과연 '우경화'이자 '좌파의 몰락'인지 분석할 예정이다.

dada@yna.co.kr

1876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제2회 심포지엄
Voice of EARP 평화의목소리 제2회 심포지엄

**조일수교 140주년,
만남과 현재를 생각한다**

동아시아 화해와 평화의 목소리 제2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2015년은 해방 7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관계를 70주년이라는 시간축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는 한 해였습니다. 제1회 학년에 평화 심포지엄에서는 과거 역사와 어떤 방식으로 마주할 것인가에 대해,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경각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조일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근대 이후 일본과의 만남과 현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방 70년을 앞둔 71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본'이라는 이름의 주술적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일본 역시 한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를 이해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를 이번 심포지엄에서 모색하려 합니다. 8월 20일, 기억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화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0일(토)
출판문화회관 4층(서울)**

총회 10:30~11:30

심포지엄 1부 13:00~15:00
주최: 이종희재단(주), 기획사: 김철현재단
발표인원: 김규민(발) 안광수(71) 오우라(72&73&74)
발언을 바라는 후원기관: 차재, 진주(조산발)보 눈살(원), 천후민주주의의 위대한(원) 이광재, 불, 것(가), 조관자(서울대)

심포지엄 2부: 종합토론 15:00~17:00
주최: 이종희재단(주) 오우라, 주무라(주)무라(주)무라, 남기정(서울대), 노지현(이탈리아), 오우라, 김동, 진우정, 조관자, 이광자, 박유정(서울대)

2016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15 17:2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